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오 종 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선 전기 경제사 교육 연구

-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원 지 혜

조선 전기 경제사 교육 연구

-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

오 종 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원 지 혜

인 준 서

원지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인

심사위원 _____ ①인

심사위원 _____ ①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라면 『국사 교과서』의 교과내용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특히 현행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처음으로 분류사체제로 편제되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조선 전기 경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경제사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행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경제사 단원 중 조선 전기 경제를 다룬 ‘근세의 경제’ 단원을 중심으로 서술체제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7차 교과서는 분류사체제의 특징을 살려 조선 전기 경제를 ‘경제 정책’과 ‘경제 활동’으로 나눠서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 정책과 경제 제도를 앞세워 서술하는 등 정치사 중심의 관점에서 서술한 6차 교과서의 서술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편 제도를 중심으로 경제사를 살펴보던 이전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제 활동’ 측면을 보강하려 하였다. 그러나 단원 제목들 간의 일관성 문제,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에 문제가 있었다. 민(民)들의 경제 활동을 내용요소로 하여 조선 전기 경제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실제 서술내용은 경제 생활내용을 제대로 서술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조선 전기 경제가 왜 근세의 경제인지 근세의 경제가 어떤 모습인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조선 전기 경제의 상황만을 서술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농업생산력이 어떤 수준이었는지 그 발전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생산력수준의 파악은 당시의 정치 · 사회 ·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현행 교과서에서 경제정책, 토지제도, 조세제도, 농업 및 농업경영형태, 상업과 수공업 등 많은 내용을 경제사의 범주로 다루고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조선 전기 경제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조선 전기 경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한국사 개설서와 입문서를 참고하여 1)농업생산력의 발달, 2)장시의 출현과 발달, 3)지주-전호 관계의 발달을 15~16세기의 주요 경제적 특징으로 잡았다.

15세기 조선의 농업생산력 수준은 논농사에서 연작상경수준에 도달했으며 밭농사에 있어서도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널리 행해졌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16세기 면화재배의 확산은 의생활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농업생산량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시간이 지나 16세기에 이르면 면화재배지역과 벼 재배 지역의 뚜렷한 분화로 농업분야에서도 교역의 필요성이 나타날 만큼 농업생산력이 증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사회는 15세기 후반 장시의 등장으로 조금씩 자연경제체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15세기 후반 장시의 등장은 장시가 어디서 시작하였으며 또 어떤 기반 위에서 15세기 후반에 장시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15세기~16세기 조선 경제변화모습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았다. 장시의 등장을 주제로 조선 전기 경제를 설명한다면 당시 상업에 대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이로 인해 나타났던 사회 · 경제적 변화들을 유기적 ·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이 시기 장시의 등장이 갖는 의미를 조선경제의 발전적인 측면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주-전호 관계의 발달’부분에서는 자연재해, 고리대, 수취제도의 폐단에 의해 소작농으로 전락했다는 교과서상의 단편적인 서술을 보완하기 위해 양인 농민이 전호화 되는 과정과 함께 이 시기 지주-전호 발달의 의미를 중점

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시기 병작제의 발달은 이전의 지주-전호의 관계 보다 발전된 농업경영형태로 근대로 나아가는 발전과정 속에서 행해진 현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시의 출현과 발달'을 대표로 하여 실제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작하여 분류사체제로서 경제사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적 모델을 제시했다. 한편으로 이러한 설명 방법은 다른 분류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즉, 교사가 각 분야마다 해당 시대의 주요 특징들을 주제로 선정하여 재구성 한다면 굳이 많은 내용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 분야의 시대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경제사를 비롯한 각 분야사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머리말	1
II.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서술 분석	
1. ‘근세의 경제’ 서술 체제 분석	4
2. ‘근세의 경제’ 서술 내용 분석	7
1) 단원 소개	7
2) 경제 정책	9
3) 양반과 평민의 경제 활동	12
III. 조선 전기 경제발전의 주요 양상	
1. 농업생산력의 발달	17
2. 장시의 출현과 발달	21
3. 지주-전호 관계의 발달	27
IV. ‘장시의 출현과 발달’ 교과-학습 과정안 작성	33
V. 맺음말	41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경제사' 단원 구성	4
<표 2> '근세의 경제' 단원 내용 구성	5
<표 3> 7차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연간 지도계획	33
<표 4> 새롭게 제시하는 '근세의 경제' 단원 지도계획	34

I. 머리말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라면 국사 교과서의 교과내용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특히 현행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지금까지의 통사체제의 서술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분류사체제로 편제되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글에서는 조선 전기 경제를 중심으로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는 경제사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동안 고등학교 경제사 교육은 정치사 중심의 관점에서 주로 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 당시의 경제 모습을 살펴보기보다 각 시대의 정치사를 중심으로 역사상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분류사체제에서 경제사 교육은 이러한 정치사 관점에서 벗어나 시기별 발전상을 경제적으로 중요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야 한다. 분류사체제가 각 분야의 발전상을 파악하는 것을 지향한다면 경제사 부분은 경제제도들을 단순히 제시하기보다 당시의 경제를 설명할 수 있는 전체적인 틀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다. 더구나 당시의 경제적 변화는 보통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를 이끄는 바탕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행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 것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¹⁾ 통사체제에서는 정치사가 내용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각 분야의 내용을 정치사 중심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분류사체제에서는 정치사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각각의 분류사가 고유한 의미와

1) 이익주, 「국사교과서의 정치사 서술 및 인식 검토」, 『한국사 교과서의 희망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3,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서술되어야 한다.

이 글의 구체적 목적은 조선 전기 경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경제사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조선 전기 경제는 'IV.경제 구조와 경제 생활' 대단원 아래 '3.근세의 경제'로 편제되어 있다. 경제 부분을 크게 경제정책과 경제활동으로 나뉘어서 설명하고 있다. 단순히 체제를 통해 비교해 보자면 종전의 교과서에 비해 생활 관련 항목을 상당히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활동을 양반지주와 농민생활로 나뉘어서 구성한 것은 의식적으로 역사발전의 주체인 피지배층의 모습을 비중 있게 설명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당시의 경제모습을 여전히 제도를 앞세워서 설명하고 있어서 양반과 농민의 생활을 어느 정도로 잘 설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사 교과서』는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역사학계의 조선 전기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는 토지제도, 조세제도, 농업사, 상업사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어 왔다. 조세제도는 세부적으로 전세, 공물, 군역 등으로 나뉘어 연구되었다. 농업사의 경우는 당대의 농업기술과 생산력수준, 그리고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상업분야의 경우 과거에는 조선의 상업 통제 정책 아래 육의전과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와 대외 무역에 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화폐와 상품유통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한편 실제 현행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양반 · 평민의 생활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주와 농민의 생활사를 다룬 연구는 없고 교양서의 목적으로 편찬된 책만이 있을 뿐이다.²⁾

경제사를 충실하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과서에 서술된 많은 내용을

2) 한국역사연구회 편,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사회 · 경제생활 이야기, 청년사, 1996

모두 전달하기보다 조선 전기 경제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조선 전기 경제의 주요 내용을 쉽고 흥미 있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과서의 내용 전부를 수업에서 다루기보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교사는 교과 내용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조선 전기 경제의 주요 내용선정을 위해서 대표적인 한국사 개설서³⁾와 입문서⁴⁾를 참고하여 1)농업생산력의 발달, 2)장시의 출현과 발달, 3)지주-전호 관계의 발달을 15~16세기의 주요 경제적 특징으로 잡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행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⁵⁾의 서술내용을 분석하고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위의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성과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조선 전기 경제의 주요 내용으로 선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여 조선 전기 경제를 유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교과-학습 과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연구가 제시하는 조선 전기 경제사 교육 내용 요소가 이론적인 대안 제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치 있는 교육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제도사를 앞세운 경제사 교육에서 벗어나 당시의 실상을 살필 수 있는 주요 내용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학습자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교육이 되리라 기대한다.

3)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4-조선초기의 경제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4) 한국사연구회 편,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상, 지식산업사, 2008

5) 7차 교육과정에서 『국사 교과서』는 2002년 초판이 발행되었으나, 근·현대사의 분류사적 문제 및 내용의 보완으로 인해서 2006년 제2판이 새롭게 발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개정판인 2006년의 교과서를 사용한다.

II.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서술 분석

1. '근세의 경제' 서술 체제 분석

'근세의 경제' 단원은 경제모습을 크게 '경제 정책'과 '경제 활동'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또한 '경제 정책'을 '경제 활동'보다 앞세워 서술하고 있다. '경제 정책'을 '경제 활동' 앞에 서술하고 있는 것은 '근세의 경제' 단원 뿐만 아니라 경제사 단원의 공통적인 서술체제라고 할 수 있다.

IV. 경제구조와 경제생활	
1. 고대의 경제	1) 삼국의 경제생활
	2) 남북국 시대의 경제적 변화
2. 중세의 경제	1) 경제 정책
	2) 경제 활동
3. 근세의 경제	1) 경제 정책
	2) 양반과 평민의 경제 활동
4. 근대태동기의 경제	1) 수취 체제의 개편
	2) 서민 경제의 발전
	3)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표 1> '경제사' 단원 구성⁶⁾

위의 <표 1>은 경제사 분야의 구성체제를 살펴보기 위해 현행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경제사 단원의 내용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언뜻 보면 '고대의 경제' 단원은 '경제생활'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원 내용은 '삼국의 경제 정책', '귀족의 경제 활동', '농민의 경제 활동'

6) 현행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목차를 보고 작성하였으며 '5. 근·현대의 경제' 단원은 비교표에서 제외하였다. 여기서는 전근대의 내용을 중심으로 '경제사' 단원 서술체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역시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경제활동을 뒤에 서술하고 있는 형식이다. 이는 현 교과서가 분류사체제를 선택하여 서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사를 정치사 중심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현행 7차 교과서가 분류사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통사체제였던 6차 교과서의 서술에서 크게 바뀌지 못하였음을 알려준다.

현행 교과서는 각 분야사가 시작하는 부분에 분야사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단원의 길잡이'란을 두어서 안내하고 있다. '경제사'의 '단원의 길잡이'에는 "경제는 인간 생활의 기초로서 인간의 삶을 가장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경제사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과정을 살펴면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모습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고 하였다. 이에 따라 '근세의 경제' 단원 역시 <표 2>에서 보듯이 '경제 활동'부분을 보강하여 서술하고자 한 점이 엿보인다. 이러한 서술체제는 민(民)이 역사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실제로 민(民)의 생활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지는 검토해봐야 할 문제다.

3.근세의 경제	1) 경제 정책	①농본주의 경제 정책 ②과전법의 시행과 변화 ③수취 체제의 확립
	2) 양반과 평민의 경제 활동	①양반 지주의 생활 ②농민 생활의 변화 ③수공업 생산 활동 ④상업 활동 ⑤수취 제도의 문란

<표 2> '근세의 경제'단원 내용 구성⁸⁾

<표 2>는 조선 전기 경제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서술체제를 살펴보

7)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두산, 2006, 133쪽

8) 현행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3.근세의 경제'단원의 하위 내용들을 표로 작성하였다. 152쪽~160쪽

기 위해서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3.근세의 경제'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2>를 살펴보면 상위 제목과 하위 내용 사이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국어사전⁹⁾에 의하면 정책(政策)은 정치 또는 정무를 시행하는 방침이란 의미이며 제도(制度)는 관습·도덕·법률 등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를 뜻한다. 이 둘은 같은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부분을 구성하는 하위 내용으로 '농본주의 경제 정책'에 이어서 토지제도로서 과전법 내용과 수취체제로서 조세제도를 함께 서술하고 있다. 이 같은 구성은 당시의 토지제도와 조세제도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지 않을 경우 학습자로 하여금 농본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과전법과 수취체제가 확립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양반과 평민의 경제활동'의 하위 내용을 살펴보면 평민의 범주로서 농민의 생활만을 서술하고 있다. 위 제목에 맞춰 일관성 있게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면 '수공업자들의 생활', '상민의 생활'로 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활동'의 마지막 내용으로 '수취제도의 문란'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과연 '수취제도의 문란'이 양반과 평민의 경제활동 분야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조선 전기 경제의 마지막 내용요소로 다루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시간의 흐름에 맞춰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체제의 일관성을 보자면 '수취제도의 문란'은 경제정책의 '수취 체제의 확립'부분과 연결하여 함께 서술되어야 한다.

이처럼 경제를 '정책'과 '활동'으로 나뉘어서 서술하는 체제는 경제사 자체의 의미와 가치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정치사적 의미와 가치에 맞춰 지배층 중심의 관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조선 전기 경제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민중심의 관점에서 서술할 필요가 있다. 조선 전

9) 민중서림 편집국 편, 『민중 엡센스 국어사전』 제5판 전면 개정판, 민중서림, 2001

기 경제에서 당시 조선의 정책과 경제제도들을 단순히 제시하기 보다는 당시 생산력수준을 바탕으로 농민의 삶과 변화 속에서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근세의 경제' 서술내용 분석

1) 단원 소개

단원소개는 각 시기의 정치상 · 경제상 · 사회상 · 문화상을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소개하는 부분이다. 근세의 경제적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단원 소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세의 경제' 단원 소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은 조세, 공납, 역의 수취 제도를 다시 정립하여 국가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양반 지배층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였다. 농업에서는 유교적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농서의 편찬과 보급, 수리시설의 확충 등 안정된 농업 조건을 만들기 위한 권농정책이 추진되었다. 상공업에서는 시전의 설치, 관영 수공업의 정비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 이런 토대 위에 점차 농업생산력이 증대되고 상공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방에서 장시가 출현하였다. 민간 상공업이 성장하면서 점차 관영 상공업 체제가 쇠퇴하였다.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지주 전호제가 발달하여 양반 지주들이 토지소유를 확대하고 수취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토지를 잃고 몰락해 가는 농민들로 사회적 동요가 심해졌다.¹⁰⁾

조선 전기 경제를 유교적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권농 정책을 추진하고 상공업에서는 시전을 설치하는 등 관영 수공업 체제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장시의 출현으로 민간 상공업이 발달하고 16세기에 이르면 지주 전호

10)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두산, 2006, 152쪽

제가 발달하는 한편 수취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농민들이 몰락해 갔다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있다.

다음은 ‘중세의 경제’ 단원소개이다.

고려는 후삼국 시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전시과 제도를 만드는 등 토지제도를 정비하여 통치 체제의 토대를 확립하였다. 또 수취 체제를 정비하면서 토지와 인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호적을 작성하였다. 아울러 국가가 주도하여 산업을 재편하면서 경작지를 확대시키고, 상업과 수공업의 체제를 확립하여 안정된 경제 기반을 확보하였다. 농업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었고, 상업은 시전을 중심으로 도시 상업이 발달하면서 점차 지방에서도 상업 활동이 증가하였다. 수공업도 관청 수공업 중심에서 점차 사원이나 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간 수공업으로 발전해 갔다. 송, 원을 중심으로 거란, 여진, 일본 등과 무역을 전개하였다.¹¹⁾

‘근세의 경제’ 단원소개를 ‘중세의 경제’ 단원소개와 비교해 보면 ‘유교적 민본주의’, ‘권농정책’, ‘장시 출현’, ‘지주 전호제의 발달’ 정도가 새롭게 제시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권농정책은 그 전 시대에서도 강조해 오던 것이고, 지주 전호제 역시 중세시기에도 나타난 현상으로 근세 경제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유교적 민본주의 역시 근세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이것은 정치적 관점을 적용한 것으로 근세 경제의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는 부족하다. 여기서는 ‘장시의 출현’만이 당시의 경제모습을 살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 경제가 발달했다는 것만 강조하고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고려시대, 즉 중세의 경제와 비교해서 조선은 왜 근세 경제인지 그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단원 소개 부분은 조선 전기 경제모습을 요약하기보다 당시 경제의 특징적인 주요 내용을 토대로

11)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두산, 2006, 142쪽

전 시대와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첫째 줄에서 “조선은 (중략) 양반 지배층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따로 양반지배층을 위해 마련한 것은 없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 기반은 과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전은 관리에게 나눠준 것이다. 문무관원을 지칭하기 위해 ‘양반 지배층’이라고 서술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엄연히 ‘양반’과 ‘양반 지배층’은 그 의미가 다르다. 이 같은 표현은 모든 양반에게 국가에서 과전을 지급한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들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2) 경제 정책

현행 교과서는 ‘경제 정책’으로 제일 먼저 농본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은 ‘농본주의’다. 현 교과서는 재정 확충과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농본주의 경제정책 하에서 토지개간과 양전사업 등을 실시했음을 서술하고 있다. 조선에서 농본주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행한 것들을 서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시 경제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어떤 목적에서 조선이 상공업보다 농업을 가장 중시여기는 정책을 세우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역시 서술되어야 한다. 농본주의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는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체제유지를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내용도 함께 서술해야 한다. 또한 경제 정책으로서 농본주의를 다룬다면 현 교과서 서술처럼 단순히 “상공업을 통제했다”는 식의 서술보다 농업에 대한 정책과 상업과 수공업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달랐는지 차별성이 드러나도록 서술해야 옳다.

두 번째 ‘과전법의 시행과 변화’ 부분에서 과전법 시행을 “관리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토지 제도를 운영하였다”

고 하면서 과전법에 대한 내용을 단순히 과전 지급, 세습되는 땅의 종류, 과전법이 15세기 후반 직전법으로 바뀌고 성종 때에는 이마저도 폐지되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 말에 시행된 과전법이 조선 초기 경제에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중세의 경제에서 과전법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왜 과전법을 시행했는지 그 결과 고려 말과 비교해서 조선 초기 경제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서술되어야 한다.

또한 이 시기 경제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특히 '수조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전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를 지급하였는데,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왼쪽부분 용어풀이에서 과전을 "관리에게 준 토지로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하였다"라고 보충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과전보다 오히려 수조권에 대한 용어가 더 어렵다. 오히려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에 한하여 관리에게 준 토지로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하였는데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고 수정하고 용어풀이로 수조권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 '수취 체제의 확립'에서는 조세 제도로서 전세, 공납, 군역과 요역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수취 체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조세제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방으로 적용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세금이 거둬지며 각 지방에서 거둬진 세금이 서울로 올라오는 전 과정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현행 7차 교과서에서는 '수취 체제의 확립'이라는 제목아래 단순히 조세 제도만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세의 경제'의 하위 제목인 '수취 제도와 재정의 운영'처럼 '수취 제도의 확립'이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들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 이 제도들이 실제 사람들의 경제생활

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함께 서술해야한다.

조세는 과전법의 경우에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세종 때에 조세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진분6등법, 연분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¹²⁾

위의 내용은 현행 7차 교과서의 조세내용 부분이다. 처음엔 과전법에 따라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다가 세종 때에 공법 이후 조세가 변했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 같은 서술은 조세제도의 변화가 농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되었고, 그 결과 농민의 생활이 보다 안정되었을 것이란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공법 이후에 농민 경제가 안정되기보다 연분이 하하년(下下年)으로 고정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결과적으로 농민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¹³⁾ 따라서 제도의 변화만을 서술하는 것에서 벗어나 왜 조세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농민 경제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함께 서술해야한다.

경제정책으로서의 농본주의는 농경지개간을 장려하고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농업기술과 농기구를 민간에 보급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것도 있으나 그 이면에는 농업기반을 안정시켜 통치체제를 유지하고자 한 의미도 있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본주의 정책을 조선 지배층들의 민(民)들을 위한 정책이었던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 ‘농본주의 경제 정책’ 다음의 ‘과전법의 시행과 변화’와 ‘수취 체제의 확립’부분에서도 과전법의 내용과 조세제도의 내용만을

12)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두산, 2006, 154~155쪽

13) 김태영, 「토지제도와 농업」, 한국사』-24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90쪽~91쪽

서술하고 있을 뿐 당시 조선 전기 경제에서 과전법과 조세제도가 갖는 의미를 서술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서술은 학습자들이 토지제도와 조세제도가 농본주의 정책의 하나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를 보완하여 서술한다면 조선 전기 경제정책을 통하여 조선 전기 경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 양반과 평민의 경제 활동

앞에서는 제도를 중심으로 조선 전기 경제를 살펴봤다면 이 부분은 조선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양반과 농민의 경제생활을 구분하면서 보다 풍부한 생활사 내용을 담으려 했으나 처음 의도만큼 시대의 생활상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양반 지주의 생활’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양반 지주들의 생활내용보다는 당시의 토지 경영 형태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다. 즉, 6차 교과서에서 농업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양반 지주의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재편집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¹⁴⁾ 양반 지주의 생활을 엿 볼 수 있는 부분은 “양반은 노비에게 가사를 돌보게 하거나 농경에 종사시키고, 옷감을 짜게 하였다. 다수의 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며 주인의 땅을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하였

14) <6차 ·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근세의 경제’ 부분 내용 비교 표>

		6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7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경제정책	내용 구성	① 경제 정책	① 농본주의 경제 정책
		② 토지제도	② 과전법의 시행과 변화
		③ 조세제도	③ 수취체제의 확립
		④ 농민 부담의 가중	
경제활동	내용 구성	① 농업	① 양반 지주의 생활
			② 농민 생활의 변화
		② 수공업	③ 수공업 생산 활동
		③ 상업과 화폐	④ 상업 활동
			⑤ 수취 제도의 문란

다. 양반은 이들 외거 노비에게 매년 신공으로 포와 돈을 거두었다. 이런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양반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마지막 4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당시 양반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전해지고 있으며¹⁵⁾ 이를 바탕으로 이 시기 양반 지주의 생활에 대한 학계의 연구성과가 있다.¹⁶⁾ 앞으로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양반 지주의 생활부분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내용은 ‘농민 생활의 변화’이다. 그런데 상위 제목은 ‘양반과 평민의 경제활동’이다. 이는 ‘농민=평민’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당시의 노비 농민이 다수 존재했었던 만큼 서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농민 생활의 변화를 담고자 한다면 노비농민과 자영농민으로 나누어 서술해야 한다. 이들이 같은 농민이었다 하더라도 이들의 생활이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행 교과서처럼 농민을 단일한 계층으로 서술하는 점은 수정되어야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권농정책’과 농민들의 노력의 결과 농민 생활이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서술하고 있다. 특히 “농사직설은 우리 나라 풍토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 토질의 개량법, 모내기법 등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하여 편찬하였다”¹⁷⁾는 서술을 통해서 농민을 주체적으로 서술하려는 점이 엿보인다.

그러나 앞부분에서는 “농민도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한 결과, 농민 생활은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하면서 바로 다음 문단에서 “이런 기술

15) 대표적인 자료는 이문건(1494~1567)의 『목재일기』다. 이 책은 중간에 결락된 부분이 있지만 32년 간에 걸친 오랜 기록이다. 이 자료는 조선 중기 한 양반 사대부의 매우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문건은 매우 세밀하게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2』, 역사비평사, 2000, 134쪽)

16) 김소은, 「16세기 양반사족의 생활상연구 :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숭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이성임, 「16세기 양반관료의 경제생활 연구」, 인하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김건태, 「16세기 양반지주층의 경제활동」, 『역사와 현실』 16권, 한국역사연구회, 1995

17)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두산, 2006, 156쪽

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농민 생활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서술하여 일관성이 떨어진다. 물론 뒤에서 바로 설명하듯 자연 재해, 고리대, 세금 부담 등으로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과 함께 그 시대의 발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야 한다.

또한 이 시기 농업생산력 수준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과서에서 생산력수준을 “밭농사는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널리 행해졌으며, 논농사도 남부 지방에서 모내기가 보급되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¹⁸⁾고 서술하고 있다. 고려시대보다 모내기가 보급, 확산되긴 하였지만 교과서의 서술내용처럼 실제로 조선 전기에 모내기가 확산되지는 않았다. 남부지방 내에서도 지역차가 있었고, 각 도별 지역차 역시 컸다는 것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력수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오면 이전과 달리 인분을 사용하는 등 시비법의 발달로 논에서도 연작상경이 가능해졌음을 제시함으로써 생산력발달을 유기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 교과서에서는 목화 재배의 확산이 의생활의 개선을 가져왔다는 서술만을 하고 있는데 목화 재배의 확산이 농업부분에서도 교환의 필요성을 가져오고 또한 이 면화가 화폐로서 기능하였다는 점을 함께 서술해야 한다.

‘수공업 생산 활동’에서는 “조선은 고려보다 관영 수공업 체제를 잘 정비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세의 ‘수공업자 활동’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부분에서는 왜 조선이 고려에 비해서 관영 수공업 체제를 정비해야만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이전의 향·소·부곡의 촌락이 거의 소멸하고 군현제의 일원적인 통치조직으로 재

18)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두산, 2006, 157쪽

편되면서 소에서 제작하던 수공업도 소멸되었다. 이 사람들을 국가 소속의 장인으로 등록시키면서 관영 수공업체제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공업체제를 ‘관영 수공업 체제’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명칭의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상업 활동’부분에서는 “조선은 고려보다도 상업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라는 서술은 학습자로 하여금 조선 전기의 상업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서술은 조선 전기 상업부분의 변화를 무시한 채 조선 전기에는 농본주의 경제 정책으로 상업 발달이 부진했고 조선 후기에 와서야 상업이 발달했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7차 교과서에서는 장시의 출현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5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장시는 서울 근교와 지방에서 농업생산력의 발달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농민이 농업을 버리고 상업에 몰릴 것을 염려한 정부에서는 장시의 발전을 억제하였으나, 일부 장시는 정기시장으로 정착해 갔다.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장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보부상은 장시에서 농산물, 수공업 제품, 수산물, 약재 등을 판매하여 유통시켰다.¹⁹⁾

이 같은 표면적인 서술에서 벗어나 당시 어떠한 경제적 기반에 의해서 장시가 이 시기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고려 뿐 아니라 조선은 건국 때부터 개항할 무렵에 이르기까지 자연경제체제가 주조를 이룬 사회였다.²⁰⁾ 이러한 조선의 자연경제체제의 구조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15세기 후반 장시가 출현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하게 이 시기에 장시가 등장했다는 식의 단편적 서술은 지양되어야 한다.

19)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두산, 2006, 159쪽

20) 오종록, 「조선시대 정치 · 사회의 성격과 의사소통」, 『역사비평』 89호, 역사비평사, 2009,

또한 “조선은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와의 무역을 통제하였다”²¹⁾고 설명한다. 자유롭게 무역하는 것을 통제하긴 했지만 이 같은 서술은 위의 내용과 함께 조선 전기의 상업발달 부분을 매우 폐쇄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기는 조선을 중계로 하여 명-조선-일본의 삼각무역체제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 같은 과정 속에서 은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광산채굴도 보다 활발해졌다. 당시의 광업에 대한 내용도 조선 전기 대외 무역을 설명하면서 함께 언급해야 할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수취제도의 문란’부분의 서술내용을 살펴보면 수취제도의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농민들이 힘들어했다는 식의 진술로 끝나고 만다. 수취제도의 운영의 문제가 왜 발생하였는지 농민들이 왜 힘들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없다. 가능하다면 보다 농민의 입장에서 당시 어느 정도로 살기가 어려웠는지 그 실상을 살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한편 ‘수취제도의 문란’이 시간의 흐름상 ‘근세의 경제’ 단원의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보다는 경제 정책부분에서 ‘수취체제의 확립’ 부분과 연결하여 함께 서술되어야 한다. 그러면 제도를 중심으로 경제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당시 경제모습의 실상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 조선 전기 경제를 토지제도, 조세제도, 농업생산력, 토지경영 및 상업 등 매우 다양한 내용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많은 내용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독립적인 나열에 그치고 말았다. 이를 보완하여 농업생산력의 발달, 장시의 출현과 발달, 지주-전호 관계의 발달을 이 시기 주요 내용으로 잡아 다음 장에서 조선 전기 경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두산, 2006, 159쪽

Ⅲ. 조선 전기 경제발전의 주요 양상

1. 농업생산력의 발달

전근대 사회에서 농업생산력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당시의 경제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정치가 운영되고 정치 세력이 변화하기도 하며 사회가 조직된다. 그런데 앞 절에서 ‘근세의 경제’ 단원의 서술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듯이 생산력수준이 발전했다는 언급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다.

상등지(上等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휴한농법 상태였던 고려시대와 달리 조선 전기의 농업생산력은 14세기 후반, 15세기에 이르러 한전(旱田)에서 2년 3작 단계, 수전(水田)에서 연작상경(連作常耕)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²²⁾ 12세기 이후 연해안의 저습지와 간척지 등이 개간되어 경작지가 확대되고 농기구와 농법이 발달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외적의 빈번한 침입으로 농토가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 전체로 본다면 이 시기에 농업생산의 증대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15세기에 들어서면 황무지로 변해버린 지역을 다시 개간함으로써 논·밭의 면적이 급증하게 되었다. 15세기 중엽에 이르면 바닷가의 옥토로 될 만한 곳은 대부분 개간 되기에 이르렀다. 중국에서 소금기에 강한 벼씨가 도입되고 재배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15세기 후반 개간된 간척지에서의 농업생산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낮은 지대로 농경지가 확산되는 추세는 내륙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²⁴⁾ 그동안 기피되어 오던 강가의 저습지에서도 경작이 이루어지게 된 것

22) 이영훈, 「조선 전기의 토지 소유와 농업 경영」, 『한국사7』, 한길사, 1994,

23) 염정섭, 『조선시대 농업발달 연구』, 태학사, 2003, 68쪽

이다. 도랑을 깊게 파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함으로써 저습지가 새로운 농토로 개발되어 내륙지역에서도 수전이 늘어났다. 수전의 증가 속도를 더욱 빨라지게 한 것이 15세기 후반부터의 천방(川防)이라는 새로운 관개기술의 보급이었다. 천방은 하천을 막아 물을 끌어올려서 하천보다 높은 지대에 물을 대거나 범람하기 쉬운 지역에 방축을 쌓고 구멍을 뚫어서 저습지를 농토로 이용하는 기술이었다. 이 관개기술은 14세기 후반부터 시도되기 시작하여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본격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다. 이렇듯 수전의 비증급증은 생산력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변화였다.

이렇듯 당시의 농업생산력 수준은 하삼도의 경우 1년 1작이 중심을 이루던 한전에서 그루갈이(根耕) 또는 2년 3작으로 발전하였다. 수전에서는 대체로 1년 1작의 형태로 경작되던 상태에서 벼-보리-벼의 이모작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15세기에 오면 하삼도를 중심으로 이전의 휴한농법(休閑農法)을 극복하고 수전에서의 연작상경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 시기 농업생산력의 증대는 농업기술의 발달로 가능했다. 연작상경은 이 시기 시비기술의 발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²⁵⁾ 오늘날에야 매년 같은 농지에 농사짓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당시에는 농토가 있어도 지력확보를 위해 1년간 혹은 수년간 그대로 두어야만 했다. 그런데 조선 전기에 오면 시비기술의 발달로 매년 경작할 수 있을 정도로 지력이 확보된 것이다. 휴한농법에서 연작농법으로의 발달은 농업생산력의 증가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이전까지 땅의 지력을 회복하는 방법은 주로 불을 지르는 것이었다.²⁶⁾ 그러

24) 이태진, 『의술과 인구 그리고 농업기술-조선 유교국가의 경제발전 모델』, 태학사, 2002, 277~331쪽

25) 김용섭, 이경식은 상경화 시기를 통일신라시기부터, 이태진은 수전상경 시기를 13세기 이후로 잡고 있다. 이태진,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1986 에서 14세기를 전후하여 휴한에서 연작으로 농법의 전환이 성취되고, 이에 따른 사회변동을 신흥사족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휴한농법에서 연작농법으로 전환한 시점을 어느 때로 잡을 것인가의 견해가 다르지만 15세기는 이미 연작농법단계로 들어왔다고 이해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26) 이태진, 『의술과 인구 그리고 농업기술-조선 유교국가의 경제발전 모델』, 태학사, 2002,, 161~185쪽

나 이 시기에 오면 시비법에서 종자에 거름을 묻혀 파종하는 분종(糞種)과 구덩이에 거름을 주는 분과(糞科) 등의 방법 외에 농지 전체에 거름을 주는 분전(糞田) 역시 이루어졌으며, 객토 방법도 발달되고 있었다. 또한 시비의 재료로 인분을 사용하게 된 것도 중요한 발전이었다. 아울러 파종 전에 세 차례나 경지를 갈아엎는 기경작업이 행해지면서 충분한 지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시대 보다 소와 철제쟁기가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대표적인 농기구로는 소가 끄는 축력농구로서 씨레 · 번지 · 밀개가 있고, 인력농구로서는 쇠스랑 · 곶배 · 호미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관개기술에서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5세기 수전농법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경종법은 이른바 법씨를 논에 직접 뿌리는 수경직파법이었다. 조선전기에는 물을 채운 논에 미리 밭아시킨 법씨를 뿌리는 수경직파법이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수경직파법 외에 물을 채우지 않은 논에 비료성분을 묻힌 법씨를 한전에서와 같이 파종하는 건경직파법은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경종법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경법의 경우 이후 제초작업 등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 쉽지 않았다. 이 시기에 이양법은 경상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 농민들에 의해 시도되었고 이 역시 가뭄이 들면 농사에 실패하기 마련이어서 조선 전기에는 금지되었다. 이양법의 확산으로 농업생산력이 보다 증대하는 것은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에 가서야 가능해진다. 다시 말하면 조선 전기의 농업생산력 수준은 고려시대에 비해서 증가하긴 했으나 조선 후기보다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한전에서의 농업기술의 발달도 두드러진다. 15세기 후반, 16세기 전반을 경과하면서 한전농법은 농업 선진지대인 남부지방에서는 보리(麥)-콩(豆)에 의한 근경법으로 경기도 이북지역에서는 보리-콩 간종(間種) 혹은 조(粟)-보

리-콩에 의한 2년3작법으로 정착되어 갔다.²⁷⁾ 연작이 가능하였던 것은 역시 시비법의 발전으로 인한 것이다. 한전의 비료종류와 시비법은 다양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분회(糞灰)가 대표적이었다. 이것은 인분과 아궁이에서 나온 재를 섞어 건조시킨 숙분과 우마의 외양간 밖에 웅덩이를 파서 확보한 우마의 분뇨에다 벼 껍질 등을 태워 얻은 재를 섞어서 만든 요회(尿灰)를 말한다. 이 분회는 주로 여러 작물의 종자와 골고루 혼합되어 함께 뿌려졌다. 이 같은 시비법의 발전에 힘입어 한전농법은 기본적으로 연작농법이었다. 그리고 한전에서 조(粟)-콩(豆)-보리(麥)의 1년 2작 또는 2년 3작의 윤작법은 우리나라 전근대농업의 역사적 수준을 대표하는 집약농업으로서 조선후기에 갈수록 일반화된다.

한편 14세기에 수입된 목화는 15세기 중엽에 이르면 북부 일부지역까지 보급되어서 우리 민족의 의복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면화의 재배로 농가의 소득은 향상되었다.²⁸⁾ 특히 목화와 주곡인 벼는 성장에 알맞은 토양 및 날씨의 차이로 16세기에 이르면 벼농사 집중지역, 면화재배 집중지역이 나타나 지역의 대표작물로서 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생활에 필수적인 두 농작물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교역이 진행되었다. 즉, 15세기 후반 16세기에 이르면 농업 내에서도 교역이 필요하게 될 정도로 생산량이 증대하게 되었다. 벼 재배지역에서는 벼를 팔아서 면화를 사오고 면화 재배 지역에서는 면화를 팔아서 벼를 사게 된 것이다. 15세기 후반 장시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양상이 상호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²⁹⁾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상이 조선 전기 전 지역의 일반적인 농업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전농업지대였던 지역, 구체적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도,

27) 이영훈, 「조선 전기의 토지 소유와 농업 경영」, 『한국사7』, 한길사, 1994, 268~271쪽

28) 南美惠, 「朝鮮前期 綿業政策과 綿布의 生産」, 『國史館論叢』 제80집, 國史編纂委員會, 1998, 172~180쪽

29) 李景植, 「16世紀 場市の 成立과 그 基盤」, 『韓國史研究』 57, 1987, 47~48쪽

황해도, 평안도, 함길도 등에서는 아직도 휴한농법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농우의 부족역시 조선 전기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크게 제약했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자연조건상 농우는 조선농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만 보통 농우를 가진 자가 한 마을에서 1~2가에 불과하고 1가의 농우로써 1리의 경작을 담당하는 경우가 과반이라는 통상적인 지적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일반농가 차원으로까지 농우가 보급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렇듯 2년 3작식 집약농법의 일반화도 농우의 보급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조선 후기에서나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시비법이 발달한 것 역시 사실이지만 모든 토지에 비료를 사용할 만큼 넉넉하지 못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15세기에 오면 수전에서 연작상경이 가능해졌고, 수전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농업생산력이 증대했으며, 한전에서 2년 3작의 윤작법이 행해지는 단계에 이르렀다. 더구나 16세기에 이르면 면화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했고, 나아가서 벼 재배 지역과 면화의 재배지역이 뚜렷해지면서 농업 안에서도 교역의 필요성이 나타날 정도로 생산력수준이 발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아직 전 지역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 전기의 농업생산력 수준은 고려시대 보다 한층 발달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2. 장시의 출현과 발달

15세기 후반에 등장한 '장시'는 조선 전기 경제의 특징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장시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인 인류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행해졌다. 청동기 시기 이미 연해지방과 내륙 농업지대간에 교역이 이루어졌고 수공업품이 유통되었으며, 교환수단으로서 모피, 곡물, 조개껍질, 돌돈이 통용되었다. 고려시대에도 주현의 관아 부근에

서 열린 시(市)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³⁰⁾ 또한 조선 초기 태종 때도 한양으로 재환도 하면서 고려 개경의 시전을 계승하여 건설된 시전행랑을 중심으로 물품거래가 행해졌다.

그런데 왜 15세기 후반 장시의 출현이 조선 전기 경제에서 중요할까? 고려는 물론이고 조선은 건국 때부터 개항할 무렵에 이르기까지 자연경제체제가 주조를 이룬 사회였다. 작게는 흔히 호(戶)로 표현되는 가정으로부터 마을, 고을 등이 주요 자급자족 단위였고, 크게는 국가 역시 폐쇄경제의 단위였다. 특히 마을은 농기구와 같은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을 자급자족하는 강력한 폐쇄경제체제를 갖추고 있었다.³¹⁾ 이러한 조선의 자연경제체제의 구조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15세기 후반 장시가 출현하면서 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경제체제가 농촌시장인 장시가 형성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장시는 왜 이 시기에 등장하였으며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된 것일까? 나아가서 장시의 등장이 조선 경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장시는 성종 원년(1470) 때 공식적으로 장문(場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다. 경인년 즉 성종 원년(1470)에 닥친 흉황으로, 전라도 지역의 인민들이 서로 모여 시포를 열고, 장문이라고 칭하였다. 민인들이 스스로 만든 교환시장이고 교역기구였다.³²⁾ 그러나 전라도 내의 모든 읍에서 장시가 등장한 것은 아니다.

장시는 모두 바다를 가까이에 두고 강줄기와 연결된 곳에서 나타나고 있

30) 仁宗 초에 고려를 다녀간 宋人 徐兢의 『고려도경』 기록을 살펴보면 “고려의 읍속에 居肆는 없고 다만 日中에 墟가 열리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徐兢은 고려의 市를 墟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墟는 본래 중국 宋代에 양자강이남 강남지방에서 열리던 촌의 정기시장 곧 촌시를 말하는 것이다. 이 밖에 고려의 市에 대한 기록이 『宋史』 열전, 외국, 고려편에 등장한다. (李景植, 「16世紀 場市の 成立과 그 基盤」, 『韓國史研究』 57, 1987, 76쪽)

31) 오종록, 「조선시대 정치·사회의 성격과 의사소통」, 『역사비평』 89호, 역사비평사, 2009

32) 李景植, 「16世紀 場市の 成立과 그 基盤」, 『韓國史研究』 57, 1987, 45쪽

다. 나주 · 무안 등 여러 읍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은 영산강을 가운데 끼고 나주평야가 널찍하게 펼쳐져 있는 곡창지대이며, 서해와 접하고 있어 해산물 또한 풍부한 지대였다. 흉황을 당하여, 전라도내 이들 제읍에서 농민들이 장시를 설립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지역의 농민들은 기근 속에서 양식과 여러 가지 필요한 생활물자를 얻고자 다른 읍에 심지어는 다른 도까지 멀리 왕래하였다.

그러나 대흉년이 장시의 등장 계기가 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요인이 될 수는 없다. 이 시기에는 오늘날처럼 재난에 대비할 특별한 기구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수재, 혹은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이 빈번하였다.³³⁾

15세기에 이르면 농촌사회는 상품화폐경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먼저 앞 절에서도 살펴봤듯이 조선 초기 농업기술의 발달로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이전보다 잉여를 축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특히 목면재배의 확산은 농민들의 의생활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면포가 민간 사이의 거래나 혹은 부세납부에서 마포를 밀어내고 정포 혹은 상포로서 교환의 기준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농가소득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더불어 농촌사회의 사회적 분업도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었다. 조선은 수공업자들을 관영수공업체제에 예속시켜 매년 일정 기간 관청수공업장에서 국역을 부담지우고,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은 주로 관청이나 도시의 지배층들을 위한 물품을 만들었으나 일반주민들의 소비를 겨냥한 생산과 판매를 하는 상품생산자로서의 성격도 갖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자급자족의 형태로 마포, 면포, 등을 짜는 직조업과 제지업, 방석 등을 제작

33) 오종록, 「15세기 자연재해의 특성과 대책」, 『역사와 현실』, 1999, 31~36쪽

하는 자리수공업 등의 가내수공업이 행해지고 있었다.³⁴⁾ 이러한 수공업제품들은 지역에 따라 생산되는 종류가 달랐는데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전국적 시장권이 형성되면서 교역이 가능해 졌다.

이 시기는 이와 같은 생산력 발전에 따른 농가소득의 증대뿐 아니라 생산관계상에서도 농가경제에 유리한 조건들이 마련되고 있었다. 과전법체제로 대표되는 이 시기 수조권적 토지 지배체제는 서서히 해체 소멸되고, 토지소유권이 서서강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자리잡아갔다. 수조권적 토지 지배를 서서본질상 소농민경영에 대한 봉건국가, 봉건지주층들의 체제적 지배의 도구로서 기능하였던 만큼, 이것의 소멸은 농민의 토지소유권의 성장, 잉여축적의 가능성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³⁵⁾ 장시가 15세기 후반 성종대에 등장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이다.

15세기 후반 이러한 변화 위에 등장한 장시는 전라도에 이어 충청도, 경상도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시는 속속 증가하여 16세기 말에는 경기 지방에서도 여기저기 출현하였고, 임진왜란을 거친 뒤로는 부쩍 성하였다.

농민이나 수공업자들은 장시를 통하여 물자의 매득과 판매를 스스로들이 생산한 물품을 가지고 직접 수행할 수 있었다. 이들은 직접생산자로서 서로 간에 필요한 물품을 교역하였다. 그러다보니 장시에서 교역을 통해 얻어지는 이득도 농민 · 수공업자에게 직접 귀속되면서 농민 · 수공업자의 소상품생산과 그 유통에서 농촌시장으로서의 장시가 성장하게 되는 기본 동기가 되었다.³⁶⁾

장시는 이렇게 직접생산자들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을 교역하는 곳으로서 매일 상설될 필요는 없었다. 장시는 한 달에 2차례씩 열렸다. 농민의 교

34) 홍희유, 『조선중세수공업사연구』, 지양사, 1989, 170~217쪽

35) 남원우, 「15세기 유통경제와 농민」, 『역사와 현실』, 1999, 71~72쪽

36) 李景植, 「16世紀 場市の 成立과 그 基盤」, 『韓國史研究』 57, 1987, 50~51쪽

역활동이 더욱 활발하여지고, 장시가 각도 · 각읍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수요 또한 늘어 감에 따라 16세기 중엽에 이르면 지역에 따라 월 3차례의 10일장도 생겨나고 있었다. 이후 16세기 말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미 초하루 · 엿새마다 서는 닷새장도 생겨났다.³⁷⁾

또한 장시는 생산자나 소비자가 모두 직접 생산자여서 교역에서 귀가까지의 일정이 하루 안에 마무리 질 수 있어야 했기에 하루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대개 30리 내외로 개설되었다. 나아가서 17세기에 이르면 이들은 점차 하루 왕복거리에 있는 장시들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장이서는 날을 달리하여 몇 개의 장시가 묶여 또 하나의 커다란 장시권을 형성해 나가게 되었다. 이때에는 한 달, 즉 30일 가운데 장이 서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할 정도였다.

16세기 초엽을 지나 장시가 늘어갈수록 농민들 중에는 소를 팔고 말을 사서 다투어 행판(行販)에 나서는가 하면 아예 소유전답을 팔아 버리거나, 타인에게 대여하여 병작시키면서 상업에 나서는 이들도 늘어갔다. 이 가운데는 소상인으로 아예 전업하는 이들의 수가 늘어 갔고, 그 중에는 농민보다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장시의 존폐를 두고 논의가 행해졌다. 그러나 장시가 흉황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폐지할 수 없었다. 16세기에 오면 조선 초기 여러 가지 신역은 직접적 부역의 형태에서 점차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 역을 지우는 대립의 형태로 바뀌어 갔고 양인의 조세 중 하나였던 공납부분에 있어서 방납의 폐단으로 인한 농민의 몰락 · 도산이 가속화되면

37) 이 사실은 『쇄미록』에서 확인된다. 저자 오희문은 癸巳年(1593) 6월 중순부터 丁酉年(1597) 2월말까지 林川에 거주하면서 장시에서 물자를 구득 · 판매하고 일기에 이를 남기고 있다. 이 중 임천장의 이용일자 중에 癸巳年 7월 초 1일, 11월 21일, 閏 11월 16일, 甲午年 정월 11일, 3월 11일, 3월 26일, 4월 21일 등이 보인다. 초하루 · 엿새 마다 열리는 닷새장이었다. 16세기 말경에는 다른 지방에서도 물산이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장시는 임천장과 같은 닷새장이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한다.(李景植, 「16世紀 場市の 成立과 그 基盤」, 『韓國史研究』 57, 1987, 53쪽)

서 비적도 성행하고 피역농민도 증대하고 있었다.³⁸⁾ 그런데 장시가 이들에게 새로운 활동처의 하나로 역할하면서 장시를 허용하는 분위기로 변해갔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 후기에는 보다 상업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에는 지금처럼 금속화폐가 아닌 주로 베(布)나 쌀(米) 등의 물품화폐를 매개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정부가 주조한 공용화폐로서 동전이 민간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는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이다. 일반적으로 쌀과 베가 농민들 사이에서 교역의 매개물로 사용된 것은 무엇보다 농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의 필수품이었고, 주된 생산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쌀과 베는 봉건국가, 봉건지배층의 수탈의 주된 대상물품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를 항상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따라서 거래상대방 누구에게나 가치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쌀과 베 중에서도 쌀은 운반상의 어려움이 따르고 화폐가 지녀야 할 축장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화폐의 기능은 주로 베가 담당하고 있었다. 이처럼 베는 옷으로 만들어 입을 수도 있고 물품을 구입할 때 지불수단으로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화폐의 단계의 것이지만, 민간이나 정부에서는 사실상의 화폐로서 인식되고 있었다.³⁹⁾

15세기 후반 장시의 출현은 조선 전기 시전을 중심으로 행해졌던 유통과 달리 농민들의 필요에 따라 교역되던 농촌시장이었다. 15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장시는 대도시 위주의 교역에서 점차 지방 곳곳까지 유통경계가 파급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38) 김성우, 「16세기 국가재정의 위기와 신분제의 변화」, 『역사와 현실』 16, 1995, 174쪽~180쪽

39) 세조대에 완간된 《경국대전》 호전(戶典)에는 포화를 저화와 함께 국폐(國幣)로서 기재하고, 정포 1필은 저화 40장, 미 40승(戶)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저화가 사실상 통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포화가 고액화폐의 기능을 담당하고, 쌀은 보조화폐로서 소액화폐의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남원우, 「15세기 유통경제와 농민」, 『역사와 현실』, 1999, 90~91쪽)

3. 지주-전호 관계의 발달

농업생산력수준이 당시의 경제변화를 이끈다면 토지소유관계의 파악은 당시의 농촌경제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15세기는 농업기술의 발달로 농업생산력이 증대하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유통기구인 장시도 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16세기에 오면 양인농민층은 왜 어떠한 이유에서 자기 소유의 농토를 팔고 지주의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

조선 초기 토지의 재편성은 고려 말 공양왕 3년에 공포된 과전법개혁의 결과이다. 고려 말 농민들은 예농적 존재로서 토지를 탈점당하고 5~6명이 넘는 전주로부터 1년에 8~9차례의 조세를 바쳐야 했다. 그러나 과전법시행 결과 예농적 존재로 겨우 연명하던 다수의 농민이 원래의 자기 소경전을 되찾음으로써 자영농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과전법에서는 소경전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작자의 자의적인 이동을 방지함으로써 수조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매'라는 말을 통해서 소유권이 보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⁰⁾ 과전법의 시행은 농민의 소경전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면서 양인 농민층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소유권은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과는 다른 불완전한 소유였다고 볼 수 있다.

농업기술의 발달과 함께 개간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고려시대 보다 토지소유실태가 호전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소유한 토지의 규모는 영세하였다. 『세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10결 이상을 경작하는 자는 모두 호부지민(豪富之民)이요, 3,4 결을 가진 자도 대체로 적다. 소민의 전지는 불과 1, 2결인 자가 많다”⁴¹⁾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이재룡, 「朝鮮初期 農民의 土地所有」, 『崇實史學』 3, 崇實大學校史學會, 1985

41) 『세종실록』 권 83, 세종 20년 11월 경자 및 권 94, 세종 23년 12월 기유(김태영, 「토지제도와 농업」, 『한국사』 -24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71쪽 재인용)

농업생산력이 발달하면서 조선 초기에는 자영농인 양인 농민층을 중심으로 국가 기반이 안정되어갔다.

그러나 15세기 후반 자영농민층의 기반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 소경전의 매매를 금지했던 것과 달리 세종 7년(1424)에 토지매매가 승인되면서 토지의 상실과 더불어 토지집중의 자유가 인정되었고 과전법체제는 붕괴되어갔다. 즉, 수조권을 매개로 한 토지지배가 무너지면서 소유권에 바탕을 둔 토지지배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산군(1494~1506)대에 오면 국가재정의 공적 체계와는 별도로 사적 체계에 의한 재정 운영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되었다. 연산군대의 무절제한 재정낭비로 국가의 공적 재정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재정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결국 전세와 공물 · 진상과 같은 각종 조세의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층에게 전가되었다.⁴²⁾ 이러한 추세는 연산군 이후 중종 대에도 국가재정체계의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면서 인납 · 무납과 같은 전대의 폐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명종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16세기에는 중앙의 통치지배력이 약화되자 수취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폐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전세의 경우 10분의 1세율의 답험손실법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폐단을 방지하고자 세종 때 그 해 풍흉과 토지의 비척에 따라 차등을 둔 연분9등법과 전분6등법의 공법을 제정하였다. 이때에는 수확량의 20분의 1인 1결당 4~20두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연분이 하하년(下下年)으로 굳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부족분의 조세를 농민들이 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균역이 요역화 됨에 따라 그 부담이 가중되면서 점차 포납화

42) 김성우, 「16세기 국가재정의 위기와 신분제의 변화」, 『역사와 현실』 16, 1995, 160쪽

(布納化)되어갔다. 결국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 군인들은 보인으로부터 받은 조역가(助役價)로 사람을 사서 대신 요역을 담당하게 하여 대립이 성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역(身役)에 바탕을 둔 군역체제가 물납(物納)위주의 체제로 바뀌어갔다. 그만큼 쌀이나 포를 마련하여 바쳐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이것을 국가재정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확대하여 공인하기에 이르러 부유한 양반층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 양인층만 이지는 가혹한 수탈행위로 곤여져갔다. 대립가는 점차 올라갔고 변상 의무자인 정군은 보인에게 가혹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보인은 소나 말 심지어 토지를 팔아 군역가를 포납하고는 남의 전호나 협호로 전락해갔다. 군역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망으로써 군역을 피했고, 보인이 자취를 감추어버린 정군은 단신으로 입역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재산을 탕진한 나머지 자신도 도망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 그나마 안정되어 있던 농민들도 점차 불안정한 처지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농민의 피해가 가장 심했던 부분은 공납이었다. 공물은 호구(戶口) · 전적(田籍) · 물산(物産)등을 기준으로 각 주현(州縣)에 부과되었다. 각 주현에 배정된 공물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고정되어 감면되지도 않았다. 또한 공물은 토산의 물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실제로는 산출되지 않는 것이 배정되기도 하여 이러한 경우 그 물품이 산출되는 곳에 나가 사들여 납부해야만 하는 등 농민의 피해는 아주 심하였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권세가 · 호상(豪商)등이 현지 수령 · 향리들과 결탁하여 대납(代納) · 방납(防納)이 행해지면서 농민의 부담은 가중되었다.⁴³⁾

43) 공물 · 진상의 각색물품의 가격이 폭등하여 양 1마리=70필, 담비 1마리=수백 필, 종이 10권=재목 100조, 활 재료=쌀 백여 석에 이르는 상황이 되고 있었다. 16세기 이러한 방납이 구조화되는 과정에서

환곡이나 지배층의 고리대를 통한 착취도 농민층의 큰 부담이 되었다. 특히 15세기 후반에 국가의 진휼기능이 약화되어 가면서 사체에 대한 의존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이를 제때에 갚지 못한 경우 자신의 토지를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보편화되면서 농민들은 토지를 팔게 되면서 재생산기반을 급격하게 상실했다.⁴⁴⁾ 16세기에 이르면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 되는데 이때 농민들이 내놓은 대부분의 토지는 양반지주층 및 호상(豪商)들이 매입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지주제가 확산되었다.

15세기 지주들의 농장경영 형태로 가작(家作), 작개(作介), 병작(竝作)이 행해졌다. 고려시기에는 주로 노비를 이용하여 농장을 직접 관리하는 가작과 작개의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가작은 기경에서 타작에 이르는 모든 작업과정을 지주가 직접 관리하는 방법으로 주로 거주지 근처에서 행해졌던 반면 작개는 당시 토지의 분산적 배치 상황에서 주로 먼 지역의 토지를 이른바 장노(庄奴) · 호노(戶奴)로 불리는 노비들이 주인을 대신하여 농장을 관리했다. 이러한 경우에 토지는 노비 자신의 책임 아래 경작되었다.⁴⁵⁾ 농장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소수의 노비만으로 경작이 가능하였겠지만, 규모가 크면 장노가 토지의 일부를 인근 양인들에게 병작지로 지급하기도 했다. 병작은 작개나 가작과 달리 지주와 작인(作人)사이의 맺어진 계약에 따라 운영되었다. 지주는 종자와 농우(農牛)를 부담하고, 작인들은 경작을 책임졌으며, 수확물은 지주와 작인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 병작지를 경작하던 15세기의 작인들은 지주에게 신분적으로 예속되지 않은 농민들이었다. 15세기에는

일반 양인농민층의 파탄 정도를 추측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재룡, 「朝鮮初期 農民의 土地所有」, 『崇實史學』 3, 崇實大學校史學會, 1985)

44) 이미 연산군 8년에는 벌써 경기도민 가운데 전택(田宅)을 상실한 자가 80~90%에 달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연산군일기』 43, 연산군 8년 3월 20일(임진), 480쪽, 김성우, 「16세기 월 20의 위기와 신분의 변화」, 『역사와 현실』 16, 1995, 176쪽 재인용)

45) 이영훈, 「조선 전기의 토지 소유와 농업 경영」, 『한국사7』, 한길사, 1994, 303쪽

병작보다 작개를 중심으로 농업경영이 이루어졌다.⁴⁶⁾

15세기에 병작제는 조선 초기에 불법적인 것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작제는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규모의 한도 내에서 사실상 존속하였고, 또한 조선 전기 이래의 사적 토지소유의 발전에 따라 확대되었다. 더구나 위에서 살펴봤듯이 국역부담에 시달리다 토지를 팔게 된 농민들은 지주들의 농장으로 투탁하면서 농장의 구조 내에서 병작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갔다. 즉, 16세기에 오면 병작제의 형태가 일반화 되면서 지주-전호의 관계가 보다 확산되었다.

16세기 병작제가 일반화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농업생산력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농업생산력이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수확의 반을 나눠 갖는 병작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16세기에 오면 농업기술의 발달로 집약적 농법이 가능해지면서 병작제가 자리를 잡아갔던 것이다. 또한 15세기에는 아직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에게도 소유권이 일정부분 인정되는 시기였던 반면 16세기에 오면 전답매매가 일반화 되면서 지주가 확실하게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병작을 해도 원활한 지대수취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작개제 경영 내적의 문제도 있었다. 노비들은 작개지의 수확물을 은닉하거나 혹은 작개지에서 태업을 일삼았다.⁴⁷⁾ 작개지를 묵히는 노비들도 발생하여 지주들은 그 대책 마련에 골몰해야 했으며 작개경작에 동원되면 도망을 가기도 했다. 노비들의 도망이 작개를 해체시키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⁴⁸⁾

46) 김건태, 「농업생산력과 농업경영」, 『한국사 길잡이』 上, 지식산업사, 2008, 402쪽

47) 『치가법제』, 「법식」에서 마름노에게 노비들이 수확물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도록 지시하는 부분과 『치가법제』, 「율령」에서 파종과 제초를 제때 하지 않은 노비에게 체형을 가하는 조항은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해준다.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108쪽)

48) 그래도 작개제는 17세기까지는 이어지며 18세기 초반이 되면 작개는 겨우 그 명맥만 유지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병작제는 조선 전기 단계의 농업생산력 발전수준과 소농민경영의 성숙을 전제로 발전한 것이다. 그에 따라 병작제 아래에의 소유자와 경작자의 상호관계는 고려 시기의 농장제나 수조지의 국가적 분급에 기초해 성립한 지주-전호 관계와는 그 성격이 달랐다고 볼 수 있다. 병작은 지주의 일방적 요구가 관철되는 농업경영 형태가 아니라, 지주와 작인의 이해타산이 서로 일치할 때만 성립되었고 병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했다.⁴⁹⁾ 다시 말하면 이 시기 전호는 이전에 비해서 농지경작을 보다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렇듯 16세기에 이르면 양인 농민들이 경작하던 토지를 상실하고 전호화되는 현상 그 자체로서는 신분적 지배예속관계의 강화 · 확대로 볼 수 있지만 병작제의 확대로 나타나는 내면적인 현실은 반대로 이의 해지나 약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한 분리는 아니었다. 16세기 자영농민의 전호화과정은 18세기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면서 신분적 관계가 경제적 관계로 변모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109쪽, 112쪽)
49)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97쪽

IV. '장시의 출현과 발달' 교과-학습 과정안 작성

현행 고등학교 7차 국사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의 연간 지도 계획을 살펴보면 'IV.경제구조와 경제 생활' 이 전체 12차시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3,근세의 경제'단원은 5차 6차시 수업으로 총 2차시에 걸쳐 진행하게끔 되어 있다.

단원	주제	차시	주요 관련 내용
IV.경제구조와 경제생활	2.중세의 경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족의 경제생활 • 수공업자의 활동 • 무역활동 • 농민의 경제생활 • 상업활동과 화폐구조
	3.근세의 경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본주의 경제정책 • 수취체제의 확립 • 과전법의 시행과 변화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반지주의 생활 • 수공업생산활동 • 수취제도의 문란 • 농민생활의 변화 • 상업활동
	4.근대 태동기의 경제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사회의 동요 • 공납의 전세화 • 전세의 정액화 • 균역법의 시행

<표 3> 7차 고등학교 교사용지도서 연간지도계획50)

하지만 필자는 조선 전기 경제 '근세의 경제'단원을 1) 농업생산력 발달 2) 장시의 출현과 발달 3) 지주-전호 관계의 발달을 주제로 하여 총 3차시에 걸쳐서 수업을 구성하였다.

50)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국사 교사용지도서』, 두산동아, 2006, 217쪽

주제	차시	소단원	주요내용
3. 근세의 경제	5	1) 농업생산력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세기 자연환경 • 발농사의 2년3작 • 수경직파법 • 시비법 및 농기구의 발달
	6	2) 장시의 출현과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시의 등장배경 • 장시의 특징 • 장시의 의미 • 화폐로서 배와 쌀
	7	3) 지주-전호 관계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전법의 의미 • 조세수취의 폐단 • 병작제 • 16세기 전호의 특징

<표 4> 새롭게 제시하는 '근세의 경제'단원 지도계획⁵¹⁾

이 중에서 '장시의 출현과 발달'을 주제로 현행 교과서 서술방법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의 수업에 적용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작해 보았다. '장시의 출현과 발달'은 전 시간에 학습하는 '농업생산력의 발달'을 배경으로 등장하며 다음 시간에 학습할 '지주-전호 관계의 발달'과도 연결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조선 전기 경제 모습을 유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1) 이 글 'Ⅲ. 조선 전기 경제발전의 주요 양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주요내용을 선정하고 표를 작성하였다.

1) 장시의 출현과 발달

대단원	IV. 경제구조와 경제생활	차시	5/13
중단원	3. 근세의 경제	수업방법	설명식
소단원	(2) 장시의 출현과 발달	지도대상	1-3반
학습자료	학습지, PPT자료,	교과서	p.35~37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시의 등장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장시의 특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 장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수	학생		
도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출석 및 수업준비상태를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학습지를 펴고 주변정리를 마친다. 	1'	전시학습 확인시 학생들이 대답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시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상기시킨다. • P.P.T. 자료를 이용하여 조선 전기 농업생산력의 발달에 대한 내용을 복습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며 교사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 ○ P.P.T 자료상에서의 () 안의 내용에 대해 답을 한다. 	3'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늘날의 재래시장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관심을 유발한다. • 이러한 장터가 언제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 질문을 하면서 집중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늘 학습할 장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다. ○ 이러한 장터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생각해본다. 	1'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목표를 함께 읽는다. 	1'	

	<p>목표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시의 등장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장시의 특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 장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p>전개</p>	<p>장시의 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전기는 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자연경제체제였음을 강조한다. ▶ 15세기 후반 장시가 전라도지역에서 처음 출현하였음을 설명한다. • 지도를 이용하여 전라도의 위치를 보면서 오늘날처럼 그 당시도 물산이 풍부한 지역이었음을 이야기 한다. ▶ 장시의 등장 배경을 15세기 조선의 경제모습을 통해서 살펴본다. • 15세기 농업생산력의 증대로 잉여생산물을 축적할 수 있었다. • 농촌사회에서 사회적 분업이 나타나고 있었다. -관영 수공업자들은 책임량을 초과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판매할 수 있었음 -농촌에서도 자급자족의 형태로 가내 수공업이 행해지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전기는 농업을 기본으로 자급자족의 자연경제체제였음을 이해한다. ▷ 왜 전라도에서 처음으로 장시가 출현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본다. ○ 장시는 흉황에 대처하면서 전라도에서 처음 등장했음을 안다. ○ 당시에는 가뭄과 수해가 자주 발생했음을 상기하며 흉황이었다고 장시가 등장한 것은 아님을 생각한다. ▷ 15세기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장시의 등장과 연관있는지 생각해본다. 	<p>5'</p> <p>5'</p>	

	<p>있었음, 주로 옷감, 농기구 등을 만들었음</p>		
<p>장시의 특징</p>	<p>▶당시 장시를 통해 교역했던 물품은 직접 판매자들이 생산한 물품임을 설명한다.</p> <p>▶오늘날처럼 시장이 매일서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2회씩 장이 섰음을 설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들은 소비자이자 생산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만드는데 시간도 걸릴 뿐 더러 대개가 직접 제조하였기 때문에 상설화할 필요가 없었다. • 16세기에 이르러 장시가 확산되면서 5일장이 서기도 했다. • 교역에서 귀가까지 하루 왕복거리로서 대개 30리 내외로 장시가 개설되었다. • 이 당시 교역의 형태가 꼭 장시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p>▶농민교환시장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장시였음을 강조한다.</p> <p>▶교역의 매개는 쌀과 벼임을 설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벼(布)가 화폐로서 기 	<p>▷장시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직접 생산한 소상공들로서 이들은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였음을 이해한다.</p> <p>▷15세기에 등장했던 장시가 16세기에 오면 더욱 발달하여 5일장이 서기도 했음을 기억한다.</p> <p>▷당시 농민들이 장시 이외의 형태로 교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교역했던 곳은 장시였음을 기억한다.</p> <p>▷오늘날처럼 아직 화폐가 보편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쌀과 벼가 이용되었음을 이해</p>	<p>5'</p> <p>5'</p>

		<p>능할 수 있었던 성격을 설명한다.</p>	<p>한다.</p>			
	장시의 의미	<p>▶16세기 장시가 확산되는 과정을 설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시를 통한 상업의 이익이 농업보다 크자 농업에서 상업으로 전업하는 경향이 발생 • 조정에서 장시의 존폐를 놓고 논의 <p>▶당시 장시는 빈농·빈민들의 새로운 활동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음을 설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세기 조세수취의 폐단 현상을 언급한다. 단, 자세한 내용은 다음 수업인 '지주-전호 관계의 발달' 시간에 설명한다. <p>▶장시의 등장은 조선전기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 경제체제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됨을 설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후기에 상업이 발달할 수 있었 것임을 언급한다. 	<p>▷15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장시가 16세기에 더욱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이해한다.</p> <p>▷당시 장시가 단순히 물건을 교역하는 곳만이 아니었음을 이해한다.</p> <p>▷장시가 등장하고 후에 발달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농업에 기반을 둔 농업사회에서 조금씩 유통경제가 발달하고 있음을 이해한다.</p>	3'	5'	3'
정리	내용 정리	<p>▶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p> <p>▶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한다.</p>	<p>▷궁금한 내용을 질문한다.</p> <p>▷오늘 학습한 내용을 설명을 들으면서 정리한다.</p>	5'		

평가	형성 평가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 전기 경제의 어떤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지 발표	▷장시를 통해 조선 전기 경제의 모습을 발표한다.	7'	자유롭게 발표하는 분위기를 유도한다
과제	차시 예고	▶다음시간에 배울 내용을 예고한다. • 지주-전호 관계의 발달	▷15세기 농업이 발달하고 장시가 등장함에도 왜 16세기에 양인 농민층의 몰락하면서 지주-전호 관계가 발달했는지 호기심을 갖는다.	1'	오늘배운 내용과어떻게연관되는지언급한다.

위의 교과-학습 과정안을 통해서 살필 수 있듯이 ‘장시의 출현과 발달’을 도입-전개-정리-평가-예고의 일반적인 학습단계에 따라서 구성하였다. 도입단계에서 전시학습은 학생들이 전 시간에 ‘농업생산력의 발달’을 학습했다는 전제 하에 작성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장시’에 대한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오늘날의 재래시장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습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3가지의 학습 목표는 이 글의 III절에서 다룬 ‘장시의 출현과 발달’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다.

전개단계는 크게 ‘장시의 등장’, ‘장시의 특징’, ‘장시의 의미’로 나뉘어서 구성하였다. ‘장시의 등장’에서는 전 시간에 학습한 ‘농업생산력의 발달’내용과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시가 출현하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15세기 조선의 경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장시의 특징’에서는 제목처럼 조선 전기에 등장한 장시의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화폐의 수단으로서 쌀과 배가 사용되었음을 함께 설명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15세기 후반에 등장한 장시가 조선 전기 경제의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장시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16세기에 장시가 발달 ·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장시가 빈농 · 빈민들의 새로운 활동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이와 아울러 16세기 조세수취의 폐단을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였다. 이는 다음 시간에 학습할 '지주-전호 관계의 발달'과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수업내용 간의 연관성을 높이고 조선 전기 경제모습을 보다 유기적으로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정리단계에서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단계에서는 모두 별로 오늘 학습한 장시를 통해 조선 전기 경제의 모습을 발표하도록 구성했으며 예고에서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안내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이상으로 조선전기 '15세기 후반의 장시의 출현'을 중심으로 하여 7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해 보았다. 필자가 이대로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용을 전달했을 때 학습자들이 받아들이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학생들에게 분류사체제에서 경제사를 가르치는 하나의 교육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왜 이 때 장시가 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을 시작으로 그에 대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다각도로 조선 전기의 경제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위의 교과-학습 과정안을 토대로 수업한다면 조선 전기 경제라 하더라도 15세기의 경제모습과 16세기의 경제모습이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V. 맺음말

현행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지금까지의 통사체제의 서술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분류사체제로 편제되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분류사체제에 맞추어 조선전기 경제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현행 7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3. 근세의 경제' 단원을 중심으로 서술체제와 서술내용을 분석하였다.

'경제사'라고 한다면 경제제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활동을 했는지 나아가서 정치, 사회, 문화 등 역사 전반을 경제현상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해야한다. 이에 따라 현행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경제를 '정책'과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했으나 체제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경제사를 지배층 중심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었다. 즉, 7차 교과서가 분류사체제를 선택하여 서술하고 있지만 정치사 중심의 관점에서 서술한 6차 교과서의 서술체제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조선 전기 경제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배층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농민중심의 관점에서 서술할 필요가 있다. 조선 전기 경제를 농민 중심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당시의 생산력수준을 바탕으로 농민의 삶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경제제도를 함께 서술할 수 있다. 즉, 조선 전기의 경제 정책과 제도, 그리고 민(民)들의 경제 활동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조선 전기의 경제모습을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선 전기 경제가 왜 근세의 경제인지 근세의 경제가 어떤 모습인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조선 전기 경제의 상황만을 서술하고 있었다. 당

시의 농업생산력 수준이 어떠한지 그 발전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생산력수준의 파악은 단순히 경제에 있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당시의 정치 · 사회 ·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명확히 서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야사의 배치를 현재의 정치사→경제사→사회사→문화사의 순서에서 경제사→사회사→정치사→문화사의 순서로 서술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제를 경제활동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경제생활부분을 보강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그러나 실제 서술내용은 경제생활을 다루기보다 기존의 농업경영형태, 수공업, 상업에 대한 내용을 재배치 한 것에 그쳤다. 즉, 7차 교과서가 분류사 방법을 따르고 있지만 통사체제였던 6차 교과서의 각 시기별 영역을 기계적으로 분리했을 뿐이다. 제도와 생활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경제의 전반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조선 전기 경제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농업생산력의 발달, 장시의 출현과 발달, 그리고 지주-전호 관계의 발달을 조선 전기 경제의 주요 내용으로 선정하여 조선 전기 경제의 모습을 발전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5세기 조선의 농업생산력 수준은 고려시대에 비해 농업기술의 발달로 논농사에서 연작상경수준에 도달했으며 밭농사에 있어서도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널리 행해졌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16세기 면화재배의 확산은 의생활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농업생산량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시간이 지나 16세기에 이르면 면화 재배지역과 벼 재배 지역의 뚜렷한 분화로 농업분야 내에서도 교역의 필요성이 나타날 만큼 농업생산력이 증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장시의 등장과 확산’부분에서는 장시가 어떤 기반 위에서 15세기 후반에 등장하고 확산되었는지 15세기~16세기 조선사회의 변화 속 살펴보았다. 15세기 후반 장시의 등장은 자연경제체제였던 조선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시의 등장을 주제로 조선 전기 경제를 설명한다면 당시 상업에 대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이로 인해 나타났던 사회 · 경제적 변화들을 유기적 ·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이 시기 장시의 등장이 갖는 의미를 조선경제의 발전적인 측면 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주-전호 관계의 발달’부분에서는 자연재해, 고리대, 수취제도의 폐단에 의해 소작농으로 전락했다는 교과서상의 단편적인 서술을 보완하기 위해 양인 농민이 전호화 되는 과정과 함께 이 시기 지주-전호 발달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15세기에서 16세기의 경제변화를 아울러 살펴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 병작제의 발달은 이전의 지주-전호의 관계에서 보다 발전된 농업경영형태로 근대로 나아가는 발전과정 속에서 행해진 현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시의 출현과 발달’을 대표로 하여 실제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작하였으나 실제 수업 현장에서 적용해 보지는 못하여 조선 전기 경제의 교수방안으로서의 효과는 살펴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조선 전기 경제를 설명한다면 학생들이 고려시대의 경제와 비교하여 조선 전기의 경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 경제라 하더라도 15세기의 경제모습과 16세기의 경제모습의 차이를 당시의 경제제도와 민(民)들의 삶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분류사체제로서 경제사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적 모델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설명 방법은 다른 분류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즉, 교사가 각 분야마다 해당 시대의 주요 특징들을 주제로 선정하여 재구성 한다면 굳이 많은 내용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 분야의 시대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경제사를 비롯한 각 분야사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는 나아가서 역사의 모습이 단지 과거의 기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생동감 있는 역사교육이 되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교과서

제6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상 · 하권, 교육부, 1992

제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교육과학기술부, 2006

제7차 『고등학교 국사』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학기술부, 2006

2. 연구 논저

1) 저서

이태진,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1986

홍희유, 『조선중세수공업사연구』, 지양사, 1989,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4-조선초기의 경제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한국역사연구회 편,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사회 · 경제생
활이야기, 청년사, 1996

민중서림편집국 편,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 제5판 전면 개정판, 민중서림,
2001

이태진, 『의술과 인구 그리고 농업기술-조선 유교국가의 경제발전모델』,
태학사, 2002,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2』, 역사비평사, 2000,

염정섭, 『조선시대 농업발달 연구』, 태학사, 2003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한국사연구회 편,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上, 지식산업사, 2008

2) 논문

- 이재룡, 「朝鮮初期 農民의 土地所有」, 『崇實史學』 3, 崇實大學校史學會, 1985
- 李景植, 「16世紀 場市の 成立과 그 基盤」, 『韓國史研究』 제57호, 한국사연구회, 1987
- 남원우, 「15세기 유통경제와 농민」, 『역사와 현실』 제5권, 역사비평사, 1991
- 오종록, 「15세기 자연재해의 특성과 대책」, 『역사와 현실』 제5권, 역사비평사, 1991
- 김태영, 「토지제도와 농업」, 『한국사』 24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 이영훈, 「조선 전기의 토지 소유와 농업 경영」, 『한국사7』, 한길사, 1994
- 김건태, 「16세기 양반지주층의 경제활동」, 『역사와 현실』 제16권, 한국역사연구회, 1995
- 김성우, 「16세기 국가재정의 위기와 신분제의 변화」, 『역사와 현실』 제16권, 한국역사연구회, 1995
- 南美惠, 「朝鮮前期 綿業政策과 綿布의 生産」, 『國史館論叢』 제80집, 國史編纂委員會, 1998
- 김소은, 「16세기 양반사족의 생활상연구 : 『목재일기』 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송규진, 「『고등학교 국사』 경제사 부분의 서술체제와 서술내용 분석」, 『한국사 교과서의 희망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3,
- 이익주, 「국사교과서의 정치사 서술 및 인식 검토」, 『한국사 교과서의 희망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3,
- 이성임, 「16세기 양반관료의 경제생활 연구」, 인하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김건태, 「농업생산력과 농업경영」, 『한국사 길잡이』 上, 지식산업사, 2008,
- 오종록, 「조선시대 정치 · 사회의 성격과 의사소통」, 『역사비평』 89호, 역사비평사,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economic education of the early Chosun Dynasty
-Focusing on the 7th edition of Korean high school history textbook-

Won, Ji-hye

Dept. of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A teacher who teaches history seems to be immensely worried about how to deliver the content of the Korean history textbook satisfactorily to their students. Current 7th edition of Korean high school history textbook was organized into a different categories or a structure of classifier for the first time. However, there are not many effective ways to deliver the text for the learners yet. In this respect, I laid out a scheme to teach economic history more easily and interestingly to the students based on the early stage of Chosun's economy.

In this study, first I analyzed descriptive structure and contents based on the unit "Economy in the modern times" dealt with the early stages of Chosun's economy among the economic history units in the current 7th edition text "Korean High school National history". And it organized economy in the early stage of Chosun dividing into "Economic policy" and "economic activity" characterizing structure of

the classifier in 7th edition text. In the view of the setting still economic policy and system at the head, in spite of this effort, it's not far different from 6th edition text descriptive structure focusing on political history.

Meanwhile, it, the 7th edition text, tried to reinforce the side of economic activity to complement the former system examining economic history centering on institution;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like inconsistency of each units' theme, and incongruity between the theme and the contents. Moreover, it was intended to consider economy in the early stage of Chosun on the basis of the elements of the content like the people's economic activities, but the real description wasn't as it was intended to.

Besides, it describes merely conditions of the early stage of Chosun's economy, not indicating any grounds; For instance, why the early stage of Chosun's economy is called "Modern economy", or what the economy in modern time was like. It should have described precisely the contents regarding development like which levels of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reached. This part need to be clearer, above all, owing to intimate relation with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in that period.

Lots of details are dealt with in this text like economic policy, land system, tax system, agriculture, agricultural business form, merchandise, and handiworks. And all of these are treated in the economic history. We could do with reconstructing its contents concentrated on the main theme of the economy in that time to teach

students in high school easily and understandably. Accordingly, I suggested the important economical features referring to the representative introductions 1)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2)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market called "jangsi(場市)", 3) The development of the relation between landowner and peasant.

The levels of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Chosun didn't only reach from rice farming to repeated cultivation, but also to cropping 3 times 2 years in millet, barley, and bean farm prevalent in 15th century. In addition, spreading of the cotton growing brought the change in clothing, meaning the increase of the productivity in agriculture. In particular, the apparent division between the cotton growing area and the rice cropping area were appeared as time passed and came to the 16th century. This led the necessity of the trade and all this fact shows that there were increases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Chosun society started to change its natural economic system little by little as the market "jangsi(場市)" introduced in the late 15th century. I inspected the market "jangsi(場市)" in the late 15th century concerning where it was started from and which circumstances it was based on associated with the phase of the economic changes in Chosun during the 15th and 16th century. I expect that I can examine the change of the economic policy around commerce at that period and, owing to this,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ppearing, explain the early stage of Chosun's economy with the emergence of the market "jangsi(場市)"-themed. Not only that, we can figure out the meaning of

the emergence of the market "jangsi(場市)" at that period in progressive aspects of Chosun economy.

I provided the meaning of the development between landowner and peasant to make up for the fragmentary information in the text enumerating that ordinary farmer fell so low as to become a peasant under the evils of the natural disaster, usury, receipt system. As a result, I could ascertain that the development of the sharing a peasant crop equally with the landlord at that time was the phenomenon in the process of the modernization. And this is the developed management form in agriculture than previous one.

In conclusion, I made the real professor - course of study case representing emergence of the market "jangsi(場市)" in the late 15th century and proposed the method model which can explain the economic history as classifier structure. On the other hand, I assume that this kind of explanation can be possible to apply to other classifiers. That is, we can see overall phases of the times without showing lots of materials, if the teachers choose the theme about the main features of the relevant age in each division and reconstruct them. Then, finally, I expect students to learn each classifiers including economic history more easily and more satisfactorily.